

# 5·18기념재단, 집안 싸움에 올 행사도 망칠라

### 이사장 선출 방식 등 정관개정 놓고 갈등 폭발

### 일부선 재단 내부 '파워게임' 시각도 적지않아

올해로 20돌을 맞은 5·18 기념재단이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관 개정으로 촉발된 내부 갈등 양상이 빨리 해결되지 못할 경우 '5·18 정신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이사회 정관개정 등 재단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정관개정 특위)는 지난 9일까지 ▲이사장 선출방식 및 연임 신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려다 반발로 무산됐다.

정관개정 특위 소속 5명의 이사가 이 이사장 선출방식 및 연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 5명 중 2명의 이사 임기가 지난 9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5·18 기념재단 이사회 이사는 모두 15명으로, 5월 관련단체, 시민단체, 제주 4·3 사건 유가족, 민교협, 민변 등 각 단체 대표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정관 개정의 핵심이면서 갈등을 야기하는 안건은 '이사장 선출방식 및

연임 개정안'으로 2년 단임제에서 1회에 한해 2년 연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년 단임제로는 비상근 무보수인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현안 업무의 연속성도 결여돼 일관성 있게 5·18 기념재단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하지만 애초 '2년 단임'이 어느 특단체에 쏠릴 수 있는 힘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통일된 논의 없이 무작정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장, 지난 해 말 사무처장이 사퇴한 배경과 이

번 정관 개정을 연관지어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이사회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시민·사회단체의 공론화를 거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측 의견이 만만치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5월 기념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5·18 기념재단 20주년 기념 행사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사퇴하면서 파행 현실화도 우려되는 형편이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 노숙자 피어

### 노동력 착취 등

### 염전노예 피해 잇따라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 전남경찰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노숙자를 피어 노동을 착취한 혐의(실종 아동 등 보호법 위반)로 박모(39)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 하의도 염전에서 한모(62)씨를 고용해 월 1만~2만원씩 용돈 수준의 급여만 주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1993년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직업소개자를 통해 신안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숨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염전을 운영해 2대에 걸쳐 한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영광경찰도 이날 지적장애인인 고영해 일을 시킨 뒤 임금 지급하지 않은 혐의(준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로 염전 업주 김모(64)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999년부터 올해 이달 초까지 영광군 염산면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이모(45)씨를 고용한 뒤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5년 전 서울에서 이씨를 우연히 만났으며, 이씨는 염전에서 함께 일하는 김씨의 제의에 따라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적수준이 3~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헌혈릴레이’

겨울철 시민들의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헌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광주 에덴병원 허정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줄을 서서 헌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여수 수산물 안전합니다”

### 해수부, 기름유출 해역 안전성 조사...발암물질 검출 안돼

해양수산부는 여수 기름유출 피해 해역을 대상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지역 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의 어장환경 조사결과, 해수 중 유분 농도는 0.22~3.55μg/l로 국내 기준 10μg/l 이하로 판명됐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는 28.8~151.7ng/l (국내 기준치 없음)

가 검출됐다.

퇴적물에서도 유분 농도는 불검출~13.18μg/kg으로 나타났으며 PAHs 농도는 10.8~69.4ng/g으로 지난해 남해안 어장환경 모니터링 때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 해양기상청 기준인 4000ng/g보다 훨씬 낮은 농도다.

또 피해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 굴, 바지락, 전복, 소라, 해삼, 우렁쉥이,

성게, 송어, 조피볼락, 도다리, 노래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모든 수산물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체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 기준물질인 벤조피렌은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PAHs의 한 종류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폐유 수거선 침수

### 여수 또 기름유출

18일 오전 7시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한 부두에 계류 중이던 폐유 수거선 해진3호(132t)가 침수되면서 기름이 유출됐다.

여수해경은 사고가 나자 인근 해경 전용부두에 근무 중인 경찰관을 동원해 이 배의 선장 오모(65)씨 등 선원 2명을 구조하고 주변에 오일펜스를 치는 등 방제 작업을 벌였다. 오른쪽으로 45도가량 기울어 밀물로 인해 침수된 배 안에서 선저폐수 등 유성 혼합물이 흘러나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해돋이 07시 15분  
해질 18시 18분

달출 22시 24분  
달정 09시 11분

### 오늘 날씨

구름 많고 낮 기온 포근하겠다.

구분	구름 많음	기온
광주	구름 많음	-2/8℃
목포	구름 많음	-2/6℃
여수	구름 많음	0/7℃
나주	구름 많음	-5/8℃
완도	구름 많음	0/8℃
구례	구름 많음	-5/8℃
강진	구름 많음	-3/8℃
해남	구름 많음	-3/8℃
장흥	구름 많음	-4/9℃
순천	구름 많음	-1/9℃
영광	구름 많음	-4/7℃
진도	구름 많음	-1/8℃
전주	구름 많음	-2/8℃
군산	구름 많음	-2/6℃
남원	구름 많음	-3/7℃
옥산도	구름 많음	-4/7℃

구분	풍향	피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1.5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m	목포	04:38	09:5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여수	11:37	05:2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5~2.5m		23:56	17:34

◇주간날씨

날짜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날씨						
최저/최고	-3/7	-4/7	-4/9	-2/11	-1/13	1/12

##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바라”

### 광주지법 장찬수 판사, 건설업체 하도급비리 따끔한 질책

### ‘갑의 횡포’ 엄중 경고

“(하도급 비리·급품수수 등) 이런 관행은 적발만 안됐을 뿐, 모든 건설업체의 관행으로 보인다.”

장찬수(44) 광주지법 판사는 작심한 듯 따끔하게 질책했다. 장 판사는 18일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배임 수·증거 등으로 각각 기소된 33명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에 앞서 다소 길게 질책했다.

그는 전날 밤 경주에서 발생한 리조트 지붕 붕괴 사건까지 언급하며 건설업체에 만연한 ‘갑(甲)의 횡포’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엄중 경고했다.

장 판사는 업계에 퍼진 부정 계약 관행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부실 시공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안감·피해, 건설업체의 윤리·직업의식 부재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는 “100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200원짜리 공사 계약서를 쓰고 남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번 사

건에는 시공사와 도급업체, 많은 하도급 업체가 관여했지만 업계 전체에 해당하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이어 사실상 만연해 있는 건설업체의 부조리를 꼭 짚어 “다른 업체들은 적발만 안됐을 뿐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장 판사는 또 “갖 대학에 합격, 꿈에 부풀어 있던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언급한 뒤 “최근 내린 습설로 하중을 못 이겼다고 하는데, 부실설계·시공에 대한 이야기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부실 시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광주지법 9단독 장찬수 판사는 이날 공사 계약·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5명에게도 징역 1년~1년 2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500만~1억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예우리**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T.062-228-6330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옆 투레유르 골목)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강화마루, 온돌마루, 오피스, 테코타일(익사각형), 테코타일(정사각형)

(주)금용건설 InstaFloor SOUTH KOREA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